☞ 25면에서 계속

견성·성불은 자기 근기 따라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돌아간다면 말도 안 되죠. 우리 몸이 우주덩어리라면 이 우주 속에 전부 생명들이 들어있고 의식들이 들어있고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들어있는데 한 덩어리가 그냥 돌아가지 두 덩어리로 갈라져서 돌아갑니까? 코 가는 데 눈이 가고, 눈이 가는 데 귀가 가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깐 모두가 직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두뇌, 즉 말하자면 대뇌로 거쳐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고 오르고 내리듯이, 똑같이 우주와 사생(四生)의 천차만별의 생명들도 전부 가설이 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거짓이 통하지만 진짜로는 마음과 마음이 직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질문자1: 우리 불자들은 스님이 되는 것을 큰 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을 극한 상황에 몰고 들어가야 승려가 되거나 불문에 드는 것입니까?

▲스님: 그것도 두 가지 여건이 있죠. 하나는 전자에 배우던 습이 있어서 다시 그 길을 밟는 수도 있고 또 그런 업적으로 인해서 그 뿌리의 자리에서 엄숙하게 자꾸 몸을 리드하니까 생각에 '아,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근기가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 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리가 좋아서 하게 되고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문에 들게 되고 서로가 공부하는 거죠.

아는 거를 다 놔버려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하는 거는 세세생생에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면으로는 악업 선업에서 벗어나고 또는 전체로서는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그러니깐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연 따라서 만남도 있고 인연 따라서 헤어짐도 있고, 마음과 마음이 끝없이 이어져 돌아가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문자1: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미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생을 살면서 불법(佛法)에 마음을 두었던 습기 아닌 습기 때문에 최상승의 마음법을 공부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단번에 뛰어들어 공부하게 된 것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거는 근기에 따라서, 과거의 지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오는 율이 더 많죠. 그러고 단번에 오는 인연은, 또 그 인연도 전자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상점에 가면 끼리끼리들 놓여 있죠. 끼리끼리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배든 언짢은 배든 배가 됐으니까 배끼리 모이고 사과도 사과끼리, 그건 자동적인 인연 인과죠.

▲질문자1: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안으로만 믿고 맡기고 관(觀)하면 지금 우리와 같은 마음 법에 버금가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까?

▲스님: 어떤 종교를 막론해놓고 그건 이름일 뿐이니까, 그전에도 얘기했죠. 불교는 어떤 이름을 상징한 것보다도 일체 생명은 불(佛)이요, 일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교(敎)라구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의 이름이든 간에 불교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라는 건 어떤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 그 안에 들어서 마찬가지의 이름이지만, 이 마음공부를 하다가 보면 둘 아닌 도리가 나올 때에, 연결이 될 때, 연결이 되면서 어린아이가 탄생을 해서 갓 나왔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석존께서 6년 고행할 때에 악마도 나왔고, 미녀도 나왔고 신장도 나왔고, 부처도 나왔고 뭐 별 게 다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깐 자세히 얘기하자면, 내 몸 안에 악업 선업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그냥 몽땅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환상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다 하고 맡겨 놔야만이 다시 돌아서 새 물로 대치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나오는 대로 끄달린다면, 악마가 나오면 버리려고 애를 쓰고 부처가 나오면 가지려고 애를 쓴다면 이거는 안되죠. 예를 들어서 병이 들고 잘못되는 율이 99%나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100%까지 다 갈 줄 알고 할 줄 알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1: 예, 감사합니다. 인도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와의 합일'이 곧 불교의 '견성(見性) 체험'과 같은 것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건 태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하여간에,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견성이고 성불이고 있는 거지, 기복으로 막 좇아가고 형상만 보고 좇아가고 이론만 가지고 따르는데 무슨 견성이 있겠소? 그러니깐 견성을 못 하는 것도 똑같고 견성을 하는 것도 똑같고, 다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마음 근기에 따라서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것뿐이죠.

▲질문자1: 일반적으로 타 종교에서는 기적 현상을 가끔 얘기합니다. 물론 저 자신은 기적 현상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만, 불교에서의 영험과의 차이점을 누가 물었길래 한번 여쭈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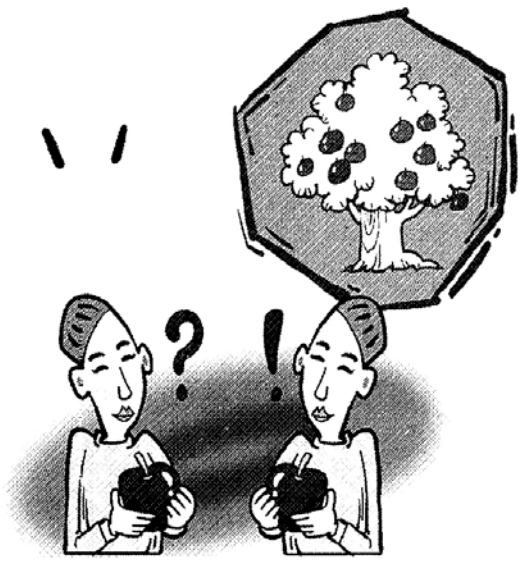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스님: 지금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허허,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할 필요도 없고 믿는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우리의 근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기적도 아니고 영험도 아니에요. 단 하나, 우리들은 다 갖추어 가지고 있어요. 갖추어 가지고 있으니까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그대로 기적이고 영험이니까요.

▲질문자1: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님: 하하하.

▲질문자1: 본래 그러하고 그러한 것이 진리라면 굳이 불교라고 이름 붙일 것이 없는데, 생각나기 이전 자리를 알기가 힘들어서 불상이니 불경이니 불교의식들이 필요치 않으면서도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결정지어서 하는 것이 그대로 법

▲스님: 왜 마음들이 그냥 살면 될 거를 왜 몸뚱이를 갖다가 형성을 시켜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아니 몸뚱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낙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고생이 없으면 낙을 모르고, 그러니깐 이게 첨부돼서, 정맥과 동맥이 서로서로 오르고 내리듯이, 우리가 지금 상대성으로서 오르고 내리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를 비유하자면, 만물상점을 내는데 만물상점이라고 간판을 써 붙여야지 만물상점이 되는 거고 만물을 다 팔고 들이고 사고 하는 거지 아, 만물상이라고 간판을 붙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방편이자 진실이고 진실이자 방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다 기다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 사는 게 그대로예요. 그냥.

▲질문자1: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사이 독특한 한 점을 역력히 아는 것이 지름길인지 궁금합니다.

▲스님: 아, 그거야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을까 말까? 집을 짓는 것도 안 짓는 것도 법이다 이랬죠. 그런데 그거는 양면의 흐름이고, 집을 짓든지 안 짓든지 내가 결정을 지어야만 되는 거죠.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짓는다고만 고집할 수도 없고 안 짓는다고 고집할 수도 없으니 너희가 지어서 좋을 일이라면 짓고 짓지 않아서 좋을 일이라면 짓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 네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네 마음 가운데서 짓든 안 짓든 결정지어서 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니라! 이런 거죠.

▲질문자1: 긴 질문에 세세한 가르침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큰 법륜 굴려 주십사 권청드리옵구요. 다시 한 번 동체대비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대중 박수)

▲스님: 허허허. 이렇게 마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찰나찰나 우리는 같이 이어져서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고, 아주 광대무변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스님을 못 봤으니깐 이렇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도 멀지요? 강을 건너가야 하고 그런데도 "스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할 때 그 한 찰나에 오고 감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 내려서는 거리와 미국 가는 거리가 똑같습니다. 한생각이기 때문에! 또 달나라를 생각하든지, 뭐 태양을 생각하든지 우주 전체를 생각하든지, 그것도 바로 요기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훌륭한 건 뭐냐? 한 벽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건너뛰어서 껑충 뛸려고만 하지말고, 한찰나에 한 계단을 올라설 수 있는, 한 계단을 올라설 수 있다면 두 계단도 세 계단도 다 올라설 수 있을 때, 그때는 확 사방이 터져서 상하도 터지고 사방도 다 터져서, 한찰나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듣는 것 없이 들을 수 있고, 보는 것 없이 볼 수 있고, 하는 것 없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자 다섯 가지 오신통 속에서 확 벗어나면서 바로 평등공법의 상투자리를 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세세생생 삶의 보람과 내가 얻었으면 일체 중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유인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이지 간곡히 빕니다. (대중 박수)

수만 명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처가 없기 때문에 전부 한데 모아도 없으면서도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고 헤어지고 이런 것도, 이건 자유자재권이라고 생각해야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에 한찰나에 불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위 법문은 1993년 12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교도소·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유취문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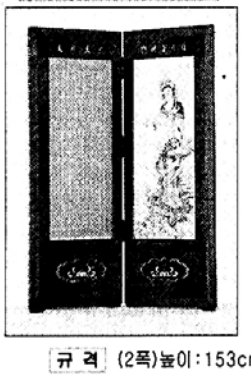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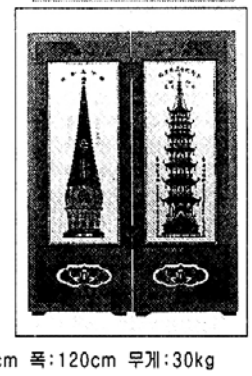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